

보시중의 으뜸 '법보시' 함께 해요



“나눔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용돈 쪼개 신문 보내기 동참...하안거 내내 선원서 참선



오병희 보살

“큰 액수를 보시한 것도 아닌데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지요.”

1999년부터 현대 불교신문 법보시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오병희(71·법명 춘몽) 보살은 ‘영수증을 받기 미안할 정도로 작은’ 보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부답스럽기만 하다고 말한다.

오 보살은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쪼개 의정부 선재동자원과 신문보내기 법보시 후원금으로 내놓고 있다. 여든의 나이에도 자신의 자원봉사활동과 보시를 돕고 있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털어놓는다.

오 보살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내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또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어 기쁘게 느낀다”며 씩스레게 웃는다.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더 의미가 있다는 오병희 보살. 이제는 생활의 일부 분으로 느껴져 인근에 살고 있는 ‘도반’들과 함께 절에 나가고 봉사하는 일을 당연시 한다.

나눔은 삶 뿐만 아니라 수행에도 열심인 오

보살은 평소에는 참선과 금강경 독송으로 신심을 키우고, 하안거 기간인 요즘에는 팔들과 머리를 앞세워(?) 매일 안양 한마음선원을 찾아 ‘삼매’에 든다. “선 체조에 이어 차분하게 참선을 하면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 더 신명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렇듯 수행과 보시가 몸에 밴 오병희 보살은 “나눔이 살아가는 일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다른 여러 사람이 행복해짐으로써 내가 행복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조그만 보시부터 실천했으면 좋겠다고는 서원을 향해 한결음 한결음 나아가고 있다.

박봉영 기자

이웃과 함께 지혜의 등 밝혀

5년째 매월 10만원 후원...“어려울때 힘 되길”



김연수 성형외과 원장

“마음이 어지러울 때 ‘길을 묻는 이에 게’를 읽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이런 소중한 말을 나 혼자 보기에겐 너무나 아까웠지요. 그래서 현대불교신문을 법보시하게 됐어요.”

지난 1999년부터

5년째 매월 10만원씩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를 해오고 있는 김연수(38·법명 월우, 김연수성형외과) 원장. 김 원장은 당시 병원을 개업하며,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 싶어서 신문 법보시를 시작했다.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하지만 항상 웃을 수 있는 것은 신문에 실린 선지식의 향문을 즐겨 읽기 때문이다. 법보시가 지혜를 밝힌다는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의 모습이다.

김 원장은 “법보시가 보시중의 으뜸”이라며 그간 실천해온 법보시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처음에는 3만원에서 5만원을 내었으나 몇 년 전부터 아예 월 10만원을 통장에서 빠지도록 자동이체 해 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저보다 더 오래,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요. 부족하지만 제게 수입이 있는 한 계속 법보시를 할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다부지게 말하는 김 원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법보시 동참을 권유했다.

김철우 기자

‘현대불교’ 군부대 등에 6년간 45만부 보내

현대불교신문이 1997년 7월부터 전범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군부대 교도소 병영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이 7월 현재 총 45만165부를 달성했다. 금액으로는 총 4억5천 165만원에 이른다.

수혜 현황을 보면 군법당 369곳에 9만6434부, 국군병원 9곳 1만404부, 교도소 교정청 28곳에 6만442부, 구치소 감호소 12곳 2만206부, 소년원 16곳 1만224부, 양로원 24곳 7602부, 아동복지시설 25곳 1만246부, 장애인복지시설 11곳 4880부, 청소년복지시설 16곳

6866부, 사회복지기관 130곳 5만8918부, 불교병원 9곳 2만151부, 경승실 177곳 7만736부, 경찰병원 2곳 1856부, 개인 52명 4만2575부, 단체 132곳 2만9310부 등이다.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은 현재 매월 422부 389만원 상당의 신문이 군장병·교도소 수형자·군·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다. 법보시 동참은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온라인 입금금 통해 가능하다. 문의 (02) 737-8881.

김원우 기자

◆도와주세요

인공혈관 수술 시급 300만원 없어 ‘발동동’



만성신부전증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수술비 3백만 원이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일구(16·사천)군은 올 6월 초 한림대 안양성심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 군은 종종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해 병을 악화시켰다.

현재 김 군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혈액투석을 위한 인조혈관 삽입 수술이다. 수술비는 300만원 정도. 하지만 소작농인 김 군 아버지의 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입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2 김철우 기자



부처를 닮은 사람들은 7월1일 수원 북수동 노인회관에서 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어르신 100명 모시고 잔치 한마당

부처를 닮은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본사 나눔의 손잡기 동점체인 부처를 닮은 사람들(회장 의선 스님, 수지포교원 주지)은 7월 1일 수원시 북수동 노인회관에서 100여명의 노인을 초청,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했다.

이날 경로위안잔치는 점심공양을 대접하며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한 뒤 흥겨운 공연한마당

순으로 진행했다.

회장 의선 스님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며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위안행사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부처를 닮은 사람들 회원 70여명은 한달 20일 이상을 교도소와 양로원, 노인당을 찾아 위문행사를 열고,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문의 (031) 266-6526 김원우 기자

■ 나눔의 손잡기 세금

한마음선원 대구지원-83,040원
울산성길만거사-58,600원

현재 총누적기금-17,106,330원

■ 나눔 저금통 및 스티커 신청

경기도 용인시 용담사 선재어린이집(원장 성목 스님)
저금통-140개
스티커-140장

부천시 연제1동 대한불교자비원(원장 자비 스님)
저금통-30개
스티커-30장

■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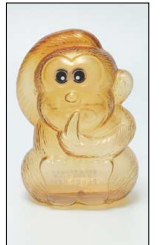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나눠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세요.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회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사찰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하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현혈증 및 정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혈증을 보내주세요. 정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장차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장차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드립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 12월31일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